

서울 소셜벤처의 관심사는 ‘일자리-교육-예술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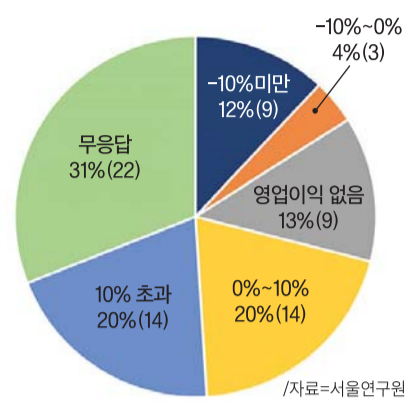
(11%)

(11%)

(9.1%)

서울연구원, 소셜벤처 71곳 조사
자금지원으로 선순환 필요성 제기
성장단계별 정책 우선순위 달라

〈서울시내 소셜벤처의 영업이익률〉



서울의 소셜벤처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일자리’와 ‘교육·보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불평등 해소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소셜벤처 7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혁신기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일자리’와 ‘교육·보육’이 각각 1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예술(9.1%), 공동체

(7.8%), 사회적경제(6.8%), 인권·정의(5.5%), 패션·디자인(4.6%)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6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약계층 고용·친환경 제품 사내 사용 등 경영 관리 과정에 사회가치를 반영하는 ‘운영적 고려’(14%) ▲공정무역·사회적기업과의 협력관계 등 생산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투입하는 ‘협력사와의 상생

(11%) ▲영업이익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자선적 기부’(4%) 순이었다.

사회적기업과 같이 영업이익을 사회에 기부하는 자선적 기부는 적었지만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판매하는 유형은 많았다.

현재 시에는 공신, 마리몬드, 동구밭, 터치포곳, 포인핸드 등의 소셜벤처가 있다. 공신은 공부법, 동기부여, 진로 콘텐츠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개선한다. 동구밭은 텃밭 체험과 천연비누 판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한다. 트리플래닛은 모바일 게임과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나무를 심는 플랫폼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소셜벤처는 사회혁신의 마인드를 갖춘 활동가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설정한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적 자세로 혁신적 해결 방

법을 모색한다”며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셜벤처의 매출규모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8%로 가장 많았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 5억원 이상(10%)이 뒤를 이었다. 영업이익률은 ‘0~10%’와 ‘10% 초과’가 각각 20%였다. 영업이익 없음(13%), -10% 미만(12%), -10%~0%(4%) 순이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셜벤처가 존재하는 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다수 존재해 경영상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단계별로 요구하는 정책도 달랐다.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성장 1단계 기업은 교육(18.3%)과 공모·전시(16.2%), 성장 2단계는 경영지원(43%)과 공모·전시(17.6%), 성장 3단계는 경영지원(35.9%)과 투자(26.8%), 성장 4단계는 사업 모델 확장(27.5%)과

투자(26.1%)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상금을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등의 이점이 있는 공모전과 기업간 정보교환을 위한 정기적 교류모임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다. 후기 성장단계에서는 소셜벤처의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업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임팩트투자자와 새로운 이해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았다.

주재욱 연구위원은 “현재 성수동이나 불광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벤처는 3년 미만의 신생 기업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확장을 도모할 단계에 있는 기업은 없는 실정”이라며 “소셜벤처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업과 인큐베이팅의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역사와 향수 품은 ‘오래가게’ 선정

70년대 다방부터 사이폰 커피까지
현재까지 65곳, 서남권 22곳 추가

#.구로구에 자리한 ‘혜성미용실’은 볼레 달군 인두로 펴를 해주는 옛 미용 방식을 30년 간 고수하고 있다. 금천구 남문시장 골목을 지키는 ‘금복상회’에서는 단돈 3000원이면 장인이 직접 문구를 새겨주는 나만의 명찰을 만들 수 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상진다방’에서는 찻잔세트부터 넓은 가족소파까지 1970년대 다방의 모습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고, 1983년에 문을 연 동작구의 ‘터방내’ 카페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사이폰으로 내려주는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동작구 ‘터방내’ 카페.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오래가게’ 2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래가게는 서울시가 역사, 고객 서비스 수준 등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매년 선정해온 서울시내 개인 점포다. ‘오래된 가게가 오래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총 65곳을 선정했고 이번에 서남권에서 22곳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오래가게로 선정된 곳은 ▲강서구 3곳(공향칼국수, 등촌동 최월선칼국수, 자성당약국) ▲관악구 3곳(그날이 오면, 미림분식, 휘가로) ▲구로구 1곳(혜성미용실) ▲금천구 2곳(금복상회, 평택쌀상회) ▲동작구 2곳(설화철물, 터방내) ▲영등포구 6곳(맨투맨양

복점, 미도과꽃집, 삼우치킨센터, 상진다방, 신흥상회, 쌍마스튜디오) ▲강북구 2곳(서울스튜디오, 황해이발관) ▲용산구 2곳(대성표구사, 합덕슈퍼) ▲종로구 1곳(거안)이다.

오래가게는 30년 이상 운영했거나 2대 이상 전통계승 혹은 대물림되는 가게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1152개 가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 후 폐업 여부를 확인해 시민·자치구 추천, 현장 평가 과정 등을 거쳐 오래가게를 선정했다.

시는 오래가게와 주변 맛집, 산책로 등을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서울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인증 현판을 만들어주고 가게 홍보도 도와줄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래가게를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오래가게만의 정서와 매력을 국내외에 꾸준히 알리고 오래가게 간 네트워크와 민간 협력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덕수궁에서 즐기는 현대 건축 전시

3일 서울 중구 덕수궁 관람객이 전시관 앞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2019 명장 선발

위원회 최종심사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 된다.

광주광역시시는 특정 분야에서 한 길을 걸어온 기능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9년 광주명장’을 선발한다.

이번 명장 신청자격은 특정분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광주내 주민등록 기간 3년 이상, 관내 기업체에 3년 이상 종사, 유사한 분야의 명장에 선정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선정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심사, 시민 사전공개, 명장심의

위원회 최종심사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가능 직종은 ‘대한민국 명장’과 동일하게 기계, 정보처리, 건축, 디자인, 이미용, 제빵·제과, 도예 등 전 분야를 망라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이다.

광주시는 5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으로 광주명장에게는 명장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 1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명장 신청서를 시 일자리정책관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

‘안전 D등급’ 개봉철도 고가 차도, 내일 성능개선 착수

철도운행 종료 후 3시간 동안 공사



개봉철도 고가차도. /서울시

서울시는 5일부터 개봉철도 고가차도 성능개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개봉철도 고가차도는 지난 2018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으로 평가돼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2021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1977년 7월 건설된 개봉철도고가차도는 남부순환로 교량이다. 이 교량은 경인선 철도(개봉역-오류동역)를 가로질러 서울 외곽 남부지역을 동서로 잇는다. 개봉철도고가차도는 경간(교각

과 교각 사이) 6개, 길이 149m, 폭 23m 규모다. 시는 교대 2개와 교각 5개를 보수·보강하고 54개 상부구조물(거더)을 모두 철거한다. 공사를 마치면 차선당

44t 이상 차량하중을 견딜 수 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다. 시는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가설교량(우회도로)을 통해 양방향의 교통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철도운행이 종료된 야간(오전 1~4시) 3시간 동안만 진행된다.

한재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버스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

서울시는 시내·마을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음주 측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버스 운전자는 탑승 전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 식별을 하고 음주 측정 모습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웹을 기반으로 자동 저장된다. 시는 음주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은 모든 시내버스 회사(영업소 포함 총 139개소)에

해 11월까지 설치한다. 내년 3월까지 마을버스(총 142개소)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매년 6개월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사람이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함에 따라 공백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